

< 綜合 要約 >

I. 人力難의 深化

- 한국 경제는 94년 2/4분기부터 사실상 完全雇傭狀態로 진입하였음.
 - 최근 失業率은 심각한 人力難을 보였던 90년대초의 수준(2.3%)을 밑돌고 있음.
 - 勞動供給의 不足과 勞動市場의 構造的 問題가 人力難을 가중시킴.
- 94년 하반기의 平均 失業率은 2.2%, 95년에는 2.3%로 전망됨.
 - 노동공급의 획기적 증대가 기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94년 하반기 이후에도 景氣 活況勢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.
- 人力難으로 인한 賃金 上昇 憂慮가 커지고 있음.
 - 人力難은 製造業에서, 특히 輕工業, 그리고 中小企業 部門에서 더욱 심각함.
 - 86년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면 임금상승률이 하락하고, 실업률이 하락하면 임금상승률이 상승하는 逆關係(필립스곡선)가 확인되어 임금상승이 우려됨.

II. 勞動市場의 構造的 問題點

- 25세미만 젊은 층의 經濟活動參加率과 就業率이 낮음.
 - 남자의 경우 日本과 비교해볼 때 15-19세의 연령층은 9.3% 포인트, 20-24세 연령층은 40.3% 포인트 만큼 經濟活動參加率이 낮음.
 - 就業率은 일본에 비해 5-8% 포인트 정도 낮고,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편임.
- 55세이상 고연령층의 經濟活動參加率이 낮음.
 - 일본과 비교할 때 고연령층의 經濟活動參加率이 상대적으로 낮음.
 -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고연령층의 經濟活動參加率이 92년을 정점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됨.
- 여자의 經濟活動參加率이 낮음.
 - 여자의 경우 25-34세 연령층의 經濟活動參加率이 특히 낮음. 結婚과 出產, 育兒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를 포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.
- 無給家族從事者와 自營業主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.
 - 산업발전에 따라 그 比重의 縮小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그 비중이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음.
- 취업 희망자들이 製造業 生産職을 忌避하고 서비스業으로 물리는 경향
 - 91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수는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세에 있음.

III. 改善 方案

- 時間制 勤勞를 活性化하고 派遣勞動(해당 회사에 정식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파견되는 노동)을 合法化할 필요.
- 서비스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업의 勤勞與件을 개선할 필요.
- 25세미만 층의 經濟活動參加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력중시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라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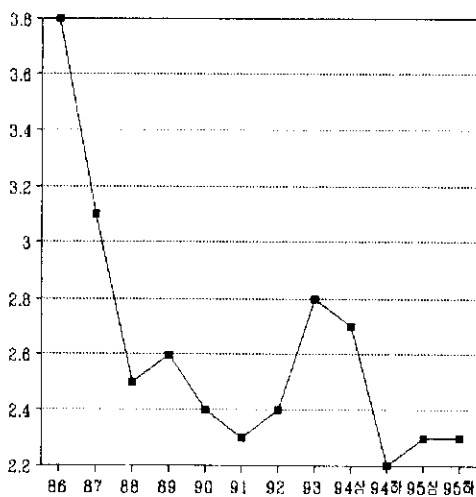
I. 人力難의 深化

- 94년 2/4분기부터 사실상 完全雇傭狀態로 진입
- 94년 하반기의 失業率은 2.2%, 95년에는 2.3%로 전망됨
- 人力難으로 인한 賃金 上昇 憂慮가 높아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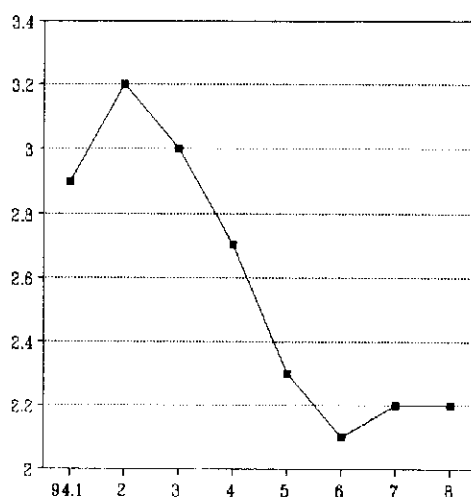
— 최근 失業率은 심각한 人力難을 보였던 90년대초의 수준을 밑돌고 있음.

- 94년 2/4분기의 失業率은 2.4%로 93년의 2.8%, 94년 1/4분기의 3.0%에 비해 크게 감소함.
- 失業率은 특히 94년 3월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6월에는 2.1% 수준까지 떨어졌고 7월과 8월에도 2.2%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함.
- 94년 8월 현재 失業者는 약 45만5천 명인데 이 중 摩擦的 失業者(職場移動 등으로 일시 休職한 사람)가 30-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므로 사실상 完全雇傭狀態에 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<그림 1> 失業率의 年度別 推移와 展望 (%)



<그림 2> 94년 失業率의 月別 推移 (%)



주: 94년 하반기 이후는 HRI의 예측치임.

－ 이 상태로 가면 失業率은 94년 하반기에 2.2%, 95년에는 2.3%가 될 전망이다.

- 經濟 回復이 노동시장의 需要 增大로 연결되기에는 약간의 時差가 있으며 94년 상반기에 8.5%의 높은 성장을 보였고 하반기에도 7.5%의 고율 성장이 예견됨.
- 게다가 勞動供給의 획기적인 증대가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人力難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.
- 이에 따라 94년 하반기의 失業率은 2.2%수준으로 상반기의 2.7%에 비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. 95년에도 失業率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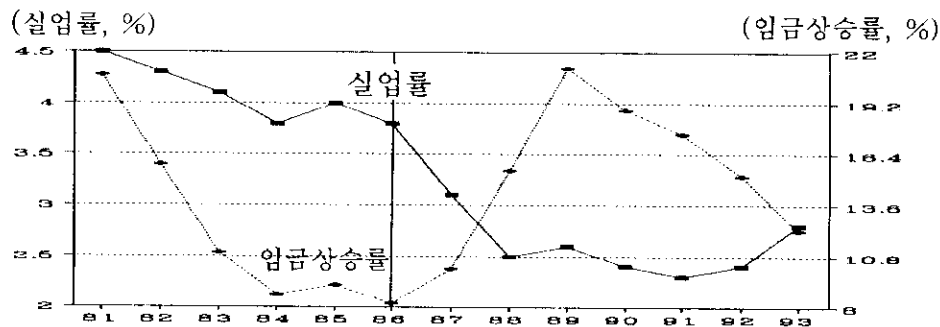
－ 人力難은 製造業에서, 제조업 중에서도 輕工業 部門에서, 그리고 中小企業 部門에서 더욱 심각함.

- 제조업의 稼働率 증대와 제조업 忌避 현상으로 人力難은 서비스業 보다는 製造業의 生産職 勤勞者를 중심으로 나타남. 특히 低學歷, 未熟練 勤勞者에 대한 人力난이 심각함.
- 業種別로 보면 자본집약적인 重化學工業보다는 노동집약적이며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輕工業 部門에서 人力난이 심각함.
- 企業規模別로 보면 勞動條件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中小企業體에 人力난이 집중됨.

－ 86년이후 실업률이 상승하면 임금상승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 임금상승률이 상승하는 逆關係(필립스 곡선)가 확인됨(<그림 3>).

- 아직 대기업이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나 94년 하반기 이후 예견되는 노동시장의 需給 차질이 임금상승을 가져와 人件費 負擔 增大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.

<그림 3> 失業率과 賃金上昇率의 推移



II. 勞動市場의 構造的 問題

- 25세미만 젊은 층, 55세이상 고연령층, 여성 등의 經濟 活動參加率이 낮음
- 無給家族從事者*와 自營業主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
- 제조업 생산직을 忌避하고 서비스업으로 몰리는 경향

* 무급가족종사자란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자

一 勞動供給의 不足이 失業率 下落의 原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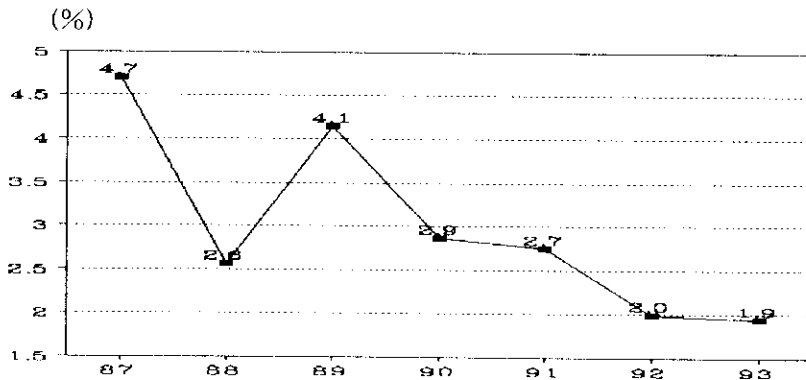
需要側面 景氣活況으로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과거의 人力難 時期에 비해 경제의 雇傭誘發效果가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함.

- 그간 勞動節約的인 自動化 投資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옴.
- 최근의 景氣活況이 雇傭誘發係數(생산의 증대가 고용을 유발시키는 정도)가 큰 建設 投資보다는 設備投資의 증대에 기인하고 있음.
- 상대적으로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.

供給側面 우리 경제의 勞動供給 能力이 거의 枯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人力難을 加重시키고 있음.

- 이러한 인식은 經濟活動人口(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사람)의 증가율이 92년이후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됨.
- 하지만 勞動市場의 構造的 問題가 勞動供給의 擴大를 制約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임.

<그림 4> 經濟活動人口의 增加率 推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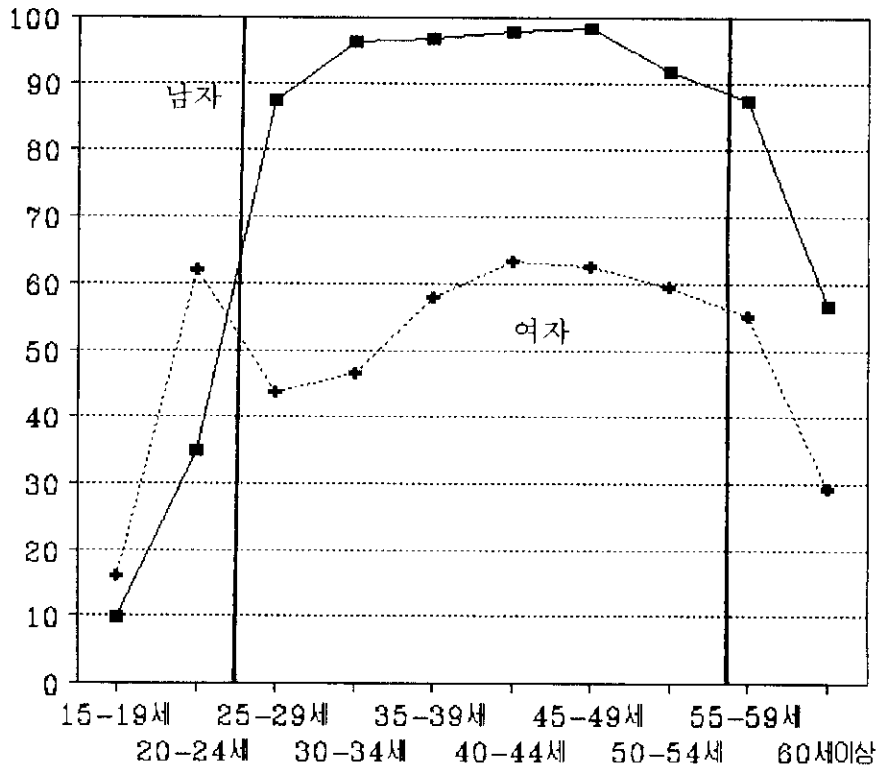


— 25세미만 젊은 층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.

- <그림 5>에서 알 수 있듯이 25세미만의 經濟活動參加率(=(경제활동인구/15세이상 인구)×100)이 현저히 낮음. 25세미만 젊은 층의 경우 병역문제도 있고, 취업보다는 대학진학 등 追加的 教育에 대한 選好度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임. 이는 사회전반의 학력위주 풍토와 고학력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임.
- 女子의 경우 20-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. 이는 남자의 경우에 비해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.

<그림 5> 經濟活動參加率의 年齡別 推移(199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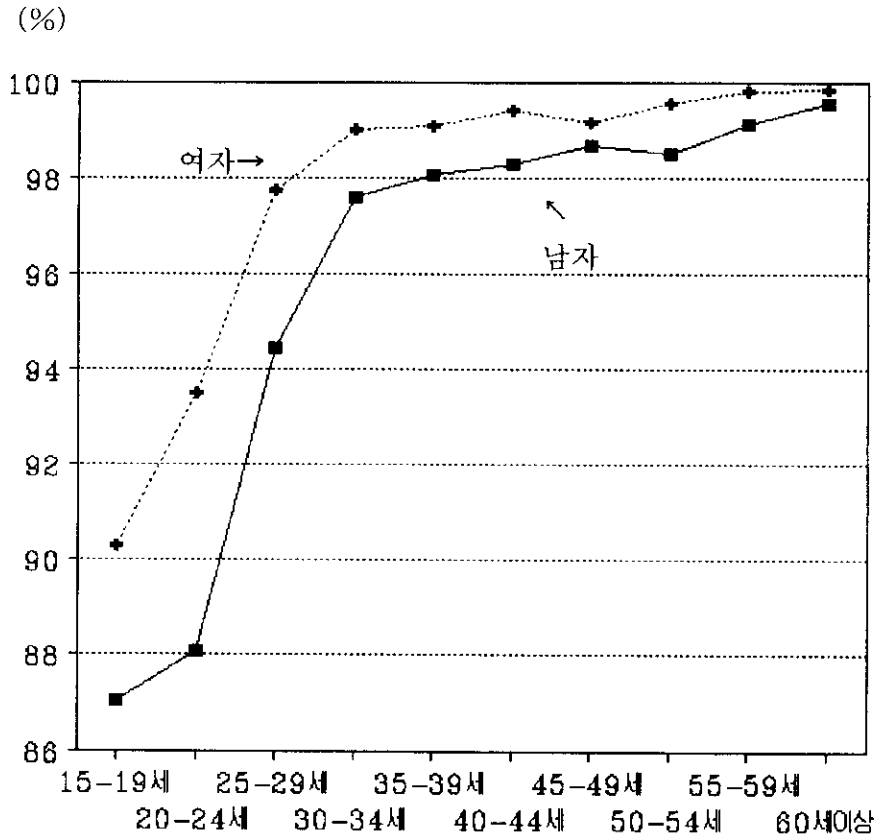
(%) ←15-24세→ ←-----25-54세-----→ ←60세이상



- 주 1) 15-24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점하는 비율: 남자 26.6%, 여자 24.8%
- 2) 25-54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점하는 비율: 남자 59.1%, 여자 56.3%
- 3) 60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점하는 비율: 남자 14.3%, 여자 18.9%

- 반면 女子의 경우 25-3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. 이는 결혼과 출산,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를 拋棄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.
- 한편, 25세미만의 就業率(- (취업자수/경제활동인구) × 100)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임(<그림 6>).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하고자 하는 25세 미만 층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.

<그림 6> 就業率의 年齡別 推移(1993)



- 日本과 比較해 보면 우리나라의 25세미만 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.

<표 1> 25세미만 연령층의 經濟活動參加率 韓日 比較

(1993, %)

		한 국(A)	일 본(B)	차이(B-A)
15-19세 연령층	남자	9.7	19.0	9.3
	여자	15.9	17.4	1.5
20-24세 연령층	남자	34.9	75.2	40.3
	여자	61.9	74.5	12.6

자료: 1) 통계청, 『한국통계월보』, 1994년 7월호.
 2) 勞動省, 『勞動白書』, 平成6年版(1993년).

<표 2> 25세미만 연령층의 就業率 韓日 比較

(1993, %)

		한 국(A)	일 본(B)	차이(B-A)
15-19세 연령층	남자	87.1	92.3	5.2
	여자	90.3	93.7	3.4
20-24세 연령층	남자	88.1	95.7	7.6
	여자	93.5	94.9	1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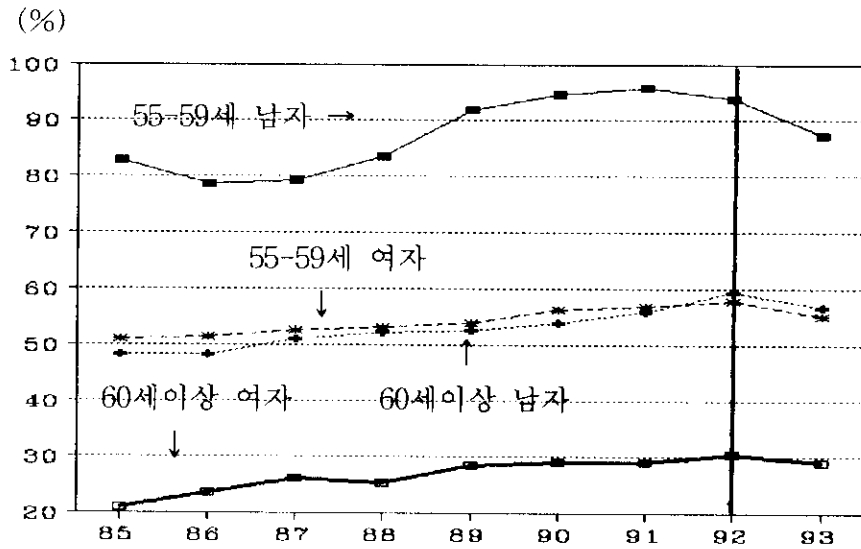
자료: 1) 통계청, 『한국통계월보』, 1994년 7월호.
 2) 勞動省, 『勞動白書』, 平成6年版(1993년).

一 高年齡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.

- <그림 5>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55세이상 高年齡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. 이는 停年 年齡이 대개 55세이하인 경우가 많고, 또 이들에게 경제활동참가 의지가 없다가 보다는 마땅한 就業機會가 잘 제공되지 않는데 실망하여 경제활동참가를 拋棄(失望效果)하기 때문일 것임.

- 연도별 추이를 보면(<그림 7>) 55세이상 高年齡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0년대 후반이후 꾸준히 상승되어 오다 92년을 정점으로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됨.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임.

<그림 7> 高年齡層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



-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55세이상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.

<표 3> 55세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韓日 比較

(1993, %)

		한 국(A)	일 본(B)	차이(B-A)
55-59세 연령층	남자	87.3	94.1	6.8
	여자	55.0	56.4	1.4
60세 이상 연령층	남자	56.7	75.6(60-64세) 37.7(65세이상)	
	여자	29.1	40.1(60-64세) 16.0(65세이상)	

자료: 1) 통계청, 『한국통계월보』, 1994년 7월호.

2) 勞動省, 『勞動白書』, 平成6年版(1993년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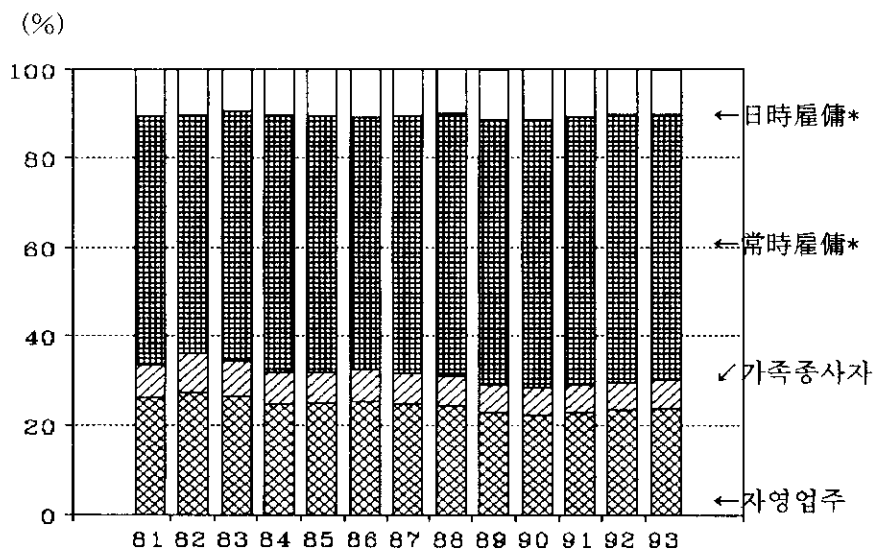
一 女性 人力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.

-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(<그림 5>).
-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상승되어 왔으나(87년의 45.0%에서 93년에는 47.2%로) 아직도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. 일본의 9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0.3%에 비해서는 3.1% 포인트 낮은 편임.

一 自營業主나 無給家族從事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음.

- 농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自營業主가 잡하는 비중은 20-30%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. 산업발전에 따라 그 비중의 축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임.
- 마찬가지로 無給家族從事者의 比重(非農)도 5-10%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.

<그림 8> 從事上의 地位別 比重의 推移



주 1) 모두 非農業部門 從事者임.

2) *常時雇傭: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

*日時雇傭: 임금 또는 보수를 받고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,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

- 自營業主나 無給家族從事者의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에도 크게 높은 형편임.
- 92년 非農 全産業의 自營業主 비중은 우리나라가 23.7%, 일본이 10.8%, 대만이 18.1%, 싱가포르 12.5%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비중이 다른 나라 보다 훨씬 높음.
- 92년 非農 全産業 無給從事者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6.2%, 일본이 4.8%, 대만이 5.9%, 싱가포르 0.9%임.

<표 4> 自營業主 및 無給家族從事者 비중의 韓日 比較

(1992, %)

	한국	일본	대만	싱가포르
자영업주	23.7	10.8	18.1	12.5
가족종사자	6.2	4.8	5.9	0.9

주: 모두 非農業部門 從事者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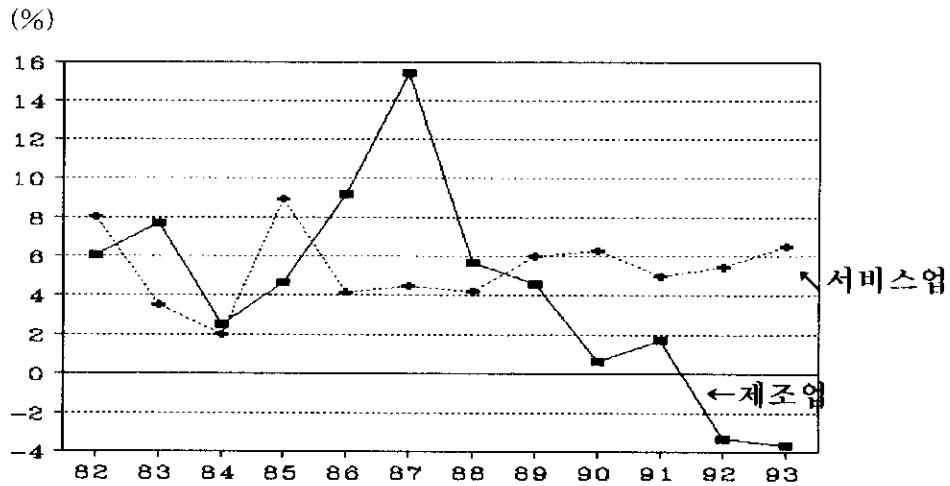
- 無給家族從事者의 경우 일자리가 구해질 경우 移職할 의사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遊休勞動力의 일부를 構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- 自營業主의 경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生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零細 自營業主가 상당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일부 역시 遊休勞動力을 構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
一 經濟의 서비스化 傾向과 더불어 취업 희망자의 製造業 忌避 傾向이 제조업의 人力難을 深化시키고 있음.

- 製造業의 就業者數는 87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91년 이후 절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- 반면 도·소매 및 음식숙박업, 운수·창고 및 통신업, 금융·보험·부동산 및 사업서비스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업 등 서비스業으로 分類될 수 있는 部門의 就業者數는 꾸준히 增大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.

- 制限的으로나마 늘어난 人力이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몰림으로써 제조업의 人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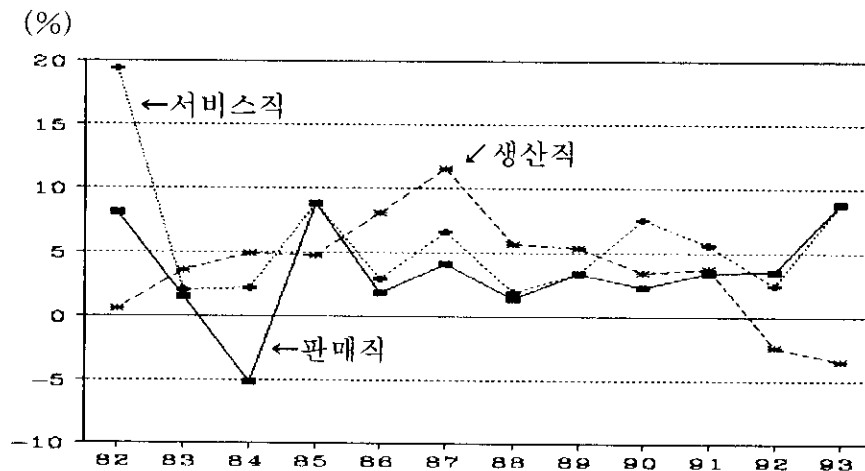
<그림 9>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僱用자수 증감추이



一 職種別로 보면 就業 希望者의 生産職 忌避傾向이 확인됨.

- 生産職의 경우 87년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91년이후 절대수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- 반면 서비스職이나 販賣職의 경우 절대수 자체가 계속 증대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증가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.
- 生産職 보다 서비스職을 選好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.

<그림 10> 職種 大分類別 就業者數 增減 推移



III. 人力難 解消 方案

- 時間制 勤勞를 活性化하고 派遣勞動을 合法化할 需要가 있음
- 서비스업에 미치지 못하는 제조업의 勤勞與件을 개선할 需要가 있음
- 25세미만 층의 經濟活動參加를 높이기 위해서는 學力중시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임

— 時間制 勤勞를 活性化하고 派遣勞動을 合法化할 需要가 있음.

- 젊은 층이나 고연령층, 여성 등이 경제활동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(특히 여성과 고연령층)의 생활여건상 常時 勤勞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할 需要가 있음.
- 우리나라의 時間制 勤勞者(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인 자) 비율은 92년의 경우 7.1%로 일본의 20.5%에 비해 크게 낮아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.
- 한편 이들이 기업에 의해 선호되지 않는 것은 長期 勤續 意志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함. 장기 근속 의지가 약한 근로자들을 상대적 저임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기업에게 제공된다면 기업측에서도 이들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.
-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고 勤勞者 派遣法의 제정을 통해 파견노동을 합법화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限界職務를 시간제 근로나 파견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노동비용으로 다수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종래 한계직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보다 生産的으로 活用할 수 있을 것이며, 生活條件 때문에 常時 勤勞나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가 제공되어 이들의 勞動市場 進入을 誘導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— 제조업의 勤勞與件을 改善하여 서비스業으로 물리는 경향을 완화시킬 需要가 있음.

- 제조업 生産職을 忌避하고 서비스業으로 물리는 경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조업의 勤勞與件이 서비스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함. 특히 중소 영세 제조업의 勤勞與件이 劣惡하기 때문임.

- 93년 제조업의 平均賃金은 88만5천 원으로 대표적 서비스업인 도·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94만2천 원에 미치지 못하며 月勤勞時間도 212.2시간으로 도·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202.1시간보다 긴 편임.
- 이렇게 상대적으로 劣惡한 勤勞與件을 改善하여 서비스業으로 물리는 근로자들을 製造業으로 誘導하여야 할 것임. 특히 作業 環境 改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.
- 그런데 제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상대적 低生産性의 反映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賃金水準을 높이는 것만이 能事는 아님. 오히려 製造業의 競争力을 弱화시켜 經濟의 서비스化 경향을 加速化시킬 우려가 있음.
- 서비스業에 비해 製造業에 대한 稅制上의 惠澤을 확대하여 勤勞與件 改善을 위한 支拂能力의 形成을 돕거나, 製造業 근로자의 勤勞所得에 대한 稅制上의 優待措置를 통해 제조업 근로자의 假處分 所得을 높여주는 등의 政策的 支援 노력이 요망됨.

— 25세미만 젊은 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해소를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학력중시 가치관의 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임.

- 25세미만 연령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기피하는 것은 사회전반의 學歷重視 風土와 크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단지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.
-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해소를 통해 지나친 高學歷化 경향을 緩和시켜야 할 것임.

(채 창 균)